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온라인	평창도서관 이전 논란...“예산 낭비” 대 “신축 시급”	1
강원도민일보	01면	[알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 11일 개...	2
江原日報	13면	시민 1,500명 함께 봄마중	3
江原日報	14면	“고품격 태백 도시숲 물려주자”	4
강원도민일보	17면	평창유나이티드 FC 유소년팀 창단	5
강원도민일보	17면	평창·시드니 유소년축구대회 폐막	5
江原日報	05면	바짝 메마른 강원 '대형산불 악몽' 초비상	6
江原日報	12면	벚꽃 만발한 강릉 ... 관광객 북적	7
江原日報	21면	‘일손부족 해결 맞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7
강원도민일보	04면	ASF 방역 울타리 철거 대신 관리비 17억원 투입 '논란'	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 2000억원 규모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8
강원도민일보	05면	하루 새 불·불·불·불·불·불 대형산불 위험 최고조	9
江原日報	06면	도교육청 ‘6대 의대 진학 프로그램’ 추진	9
강원도민일보	07면	골목상권 파고드는 수입 과일 ... 강원과수 판매 열세	10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 해양심층수 제2특화농공단지 '순항'	10
江原日報	01면	응급수술마져 어려워진 도내 대학병원	11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 역사문화축제 단종문화제 26일 개막	12
江原日報	06면	국토부·지자체 GTX-B 연장 첫 공동실무협의	12
江原日報	23면	춘천·양구 우승 ... 대회新 35개 터졌다	13
강원도민일보	17면	이상헌 2경기 연속 멀티골... 강원FC 5위 도약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반짝 할인행사 물가 안정 한계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바이오 의약' 주도권 확보해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총선 사전투표 열기 최고, 본투표에도 이어지길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손님 없는 전통시장,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18

2024 04 07 ()



평창도서관 이전 논란...“예산 낭비” 대 “신축 시급”



[앵커]

강원도교육청의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역 사회에선 꼭 신축이 필요하다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교육도서관입니다.

1993년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구역을 포함해 12면뿐.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권민혁/평창군 평창읍 : "차로 온다고 해도 되게 길이 좁아가지고 불편함도 있고, 또 시설이 30년이나 지났다고 해 가지고 오래된 것도 있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이 도서관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149억 원을 편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6억 원을 들여 도서관 시설을 보수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아예 새로 짓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용객 수가 적고 기존 건물 활용 계획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엔 '도서관 이전 계획 백지화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설 보수와 상관없이 신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종수/평창읍번영회장 : "(6억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석면 철거와 화장실 개·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지금 있는 도서관은 책을 보관할 데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하 서고에 와봤습니다.

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이 부족해, 넘치는 책들은 원주교육문화관에 맡겨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5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도서관 신축 이전 계획을 다시 반영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goldman@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01

알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다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 11일 개최

강원도민일보와 G1방송은 4월 11일 오전 10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도내 최초로 당선자 교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는 등 강원도와 18개 시군 역량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는 당선인과 출마자,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주요기관 단체장, 강원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8개 시군 시장군수, 18개 시군의회의장단 및 시군의원,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을 다짐합니다.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서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조기이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공약실천 다짐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 행사명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
■ 일 시 |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2층
■ 주 최 | 강원도민일보·G1방송
■ 문 의 |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033)260-9221
G1방송 보도국 033)248-5301

江原日報

2024 04 08 ()

13



◇속초시와 양양속초산림조합,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속초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지난 5일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시민 1,500명 함께 봄마중

속초시

1인당 2그루 선착순 배부
총선 후보들도 방문 인사

속초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제79회 식목일인 지난 5일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속초시와 양양속초산림조합,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장 및 시의원, 김시성·강정호·원미희 도의원, 전도영 양양속초산림조합장,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봄날씨 속에서 열렸다.

이날 시장과 시의장, 시·도의원, 시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준비한 자두나무, 개복숭아나무, 오미자나무, 매실나무, 체리나무 등 5종의

유실수 4,000그루를 시민들에게 1인당 2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눠줬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여 경각심을 고취, (사)속초숲산림교육전문가협회는 꽃씨앗 나눔 행사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겨울과 봄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내려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것”이라며 “속초를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4 04 08 ()

14



◇제79회 식목일 기념 태백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지난 5일 태백종합경기장에서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고품격 태백 도시숲 물려주자”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성료

1,500명에 5그루씩 제공
총선 운동원들 지지 호소

【태백】“어린 묘목을 키우기 위한 작은 정성으로 미래세대에 게 올창한 숲과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태백시와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지난 5일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

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이경숙 시의회 부의장, 최미영·홍지영 시의원을 비롯해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실수, 특용수, 화목류, 다육식물 등 총 12종 약 7,500그루가 1인당 5그루씩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됐다.

행사장에는 4·10 총선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의 운동원들도 나와 태백시민들을 상대

로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운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산림이 무성한 태백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민들에게 소중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재창 태백시의장은 “앞으로도 품격 있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광희기자 kwh635@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17

평창유나이티드 FC 유소년팀 창단

K4리그 평창유나이티드 FC가 유소년팀(U-15)을 창단했다.

평창유나이티드 FC는 지난 6일 오후 진부문화센터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홍창표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부회장, 심봉섭 평창군축구협회장과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년팀(U-15)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한 평창유나이티드 FC 유소년팀은 유성우 감독, 김용주·지현구 코치 등 지도자와 U-12 27명, U-15 15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특히 평창유나이티드 FC 성인 선수들이 청소년 선수들의 멘토가 돼 1대1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태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17

평창·시드니 유소년축구대회 폐막

2024-2025 제2회 평창·시드니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6일 봉평생활체육공원에서 개회식을 갖고 7일까지 열렸다.

(사)미션코리아스쿨 오스트레일리아(대표 이철성)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24개 유소년팀과 국외 연합 4개팀을 포함, 10개국에서 모두 28개팀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U-10, U-12, U-15팀으로 나뉘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6일 열린 개회식에는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한왕기 전 군수와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선수와 학부모, 축구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4 04 08 ()

05

바짝 메마른 강원 '대형산불 악몽' 초비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강원지역에서 산불이 속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에만 총 6건의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23분께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의 한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과 횡성군 등은 장비 12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0여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산불 현장에서는 A(8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소방당국은 A씨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후 2시16분께에는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0.03ha가 소실됐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5명을 투입,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45분께 동해시 신흥동의 한 사유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0.8ha를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꺼졌다. 오전 11시24분께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국유림에서는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휴일 하루에만 횡성·양양·동해·철원·삼척서 산불 6건 속출
쓰레기 태우다 불길 번져 80대 사망... 재난 경보 '경계' 상향

산불이 발생,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사유림에서는 오전 10시18분께 산불이 나 산림 0.02ha를 태우고 37분 만에 진화됐으며, 오전 9시26분께에는 철원군 갈말

읍 신철원리의 사유림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길이 산으로 번져 산림 0.1ha를 태운 뒤 30여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은 지난 6일 낮 12시부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

이 커짐에 따라 강원지역 북부 9개 시·군 등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4 08 ()

12

벚꽃 만발한 강릉 ... 관광객 북적

축제 개최 잇따라 ... 시 플리마켓·공연 등 콘텐츠 풍성

【강릉】주말을 맞아 강릉지역 일대가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 위한 인파로 붐볐다.

7일 강릉 경포 일대는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근 강릉지역에 불어닥친 꽃샘추위로 벚꽃이 아직 만개 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맑은 날씨 속 벚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경포 일대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특히 인근에서 '2024 강릉 벚

꽃 축제'와 '오죽헌 뱃놀이 with 벚꽃프린지' 등 다양한 봄 축제도 열려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김아현(25·경기 남양주)씨는 "강릉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소식에 걱정했는데 강릉역이나 시내 등은 꽃이 활짝 피었다"며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도 열려 신나고 사전 투표도 강릉에서 했다"고 기뻐했다.

벚꽃 개화가 늦어지며 경포

벚꽃 축제 개막일을 미뤘던 강릉시는 플리마켓과 공연, 피크닉존,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홍보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또 누워서 타는 자전거 체험과 병무 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캠페인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죽헌 뱃놀이 with 벚꽃프린지'는 강릉 오죽헌 일원에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으며, '2024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류호준·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4 04 08 ()

21

'일손부족 해결 맞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강원자치도-강원농협 협약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본부장: 김경록)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석성균 도 농정국장,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창천 도 농정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석성균 도 농정국장,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창천 도 농정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 고용인력

역간 교류 중개, 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농업 고용인력 지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인력을 알선 중개한다. 지역별·품목별 인력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영농철 적기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통역 지원 등 내·외국인 농업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현정·최기영기자

2024 04 08 ()

강원도민일보

04

ASF 방역 울타리 철거 대신 관리비 17억원 투입 '논란'

산양 집단폐사 원인 지적에도
정부, 8억여원 교부... 대책 부진
도 "환경부 관리방안 용역 수행"

환경부가 강원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울타리 관리 예산 8억 5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지방비를 포함해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울타리 관리 비로 쓰이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강원 산간지역에서 발생한 산양 폐사 죽음 원인으로 ASF 방역 울타리가 꼽히고 있지만, 환경부는 울타리 철거보다는 존치에 무게를 두며 관리 예산을 또 투입한 것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최근 강원도청에 '2024년 ASF 차단울타리 관리 국고보조금 8억 5000만원을 교부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강원도(3억 4000만원)와 시·군(5억 1000만원)은 8억 5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게 돼 총 관리예산은 17억원으로 늘었다.

ASF 차단 울타리는 ASF 감염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34개 시·군에 1831km 걸쳐 구축돼 있다. 강원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

는 전국의 64%(1179km)를 차지한다.

ASF 방역 울타리는 울거울 산양 집단 폐죽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철거 등 대책 방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겨우내 폭설로 먹잇감을 찾아 산에서 내려온 산양들이 ASF 방역 울타리에 막혀 집단 폐사했다고 본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양 537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국내 서식하는 산양 2000여마리의 25% 규모다. 강원 산간지역에만 493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겨울에 21차례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산양 집단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은 폭설을 짊어 수 있다"면서 "폭설로 낮은 지대로 이동하는 산양을 고립시켜 죽음으로 내몬 건 울타리 뿐이다. 산림청과 문화재청, 지자체, 군부대,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ASF 울타리 관리 예산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자체 구입 용도로 쓰인다"며 "환경부는 ASF 울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04

강원도 2000억원 규모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

강원특별자치도가 2000억원 규모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에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해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도내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원도는 지난 5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첨단 바이오 헬스 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강원도가 내년부터 자체 조성하는 펀드다. 강원도는 이 펀드로 도내 바이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도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바이오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며 "혁신기업과 협업해 기업의 임상과 실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난 2월 29일 신청했다. 25년간 지역에서 자생한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와 춘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해 선정된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규제도 건을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기업혁신파크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선정되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3종 세트가 완성된다"고 했다.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강원도를 포함한 11개 광역 시·도가 뛰어 들었다. 오는 5월 발표 평가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최종 발표 예정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05

하루 새 불·불·불·불·불·불 대형산불 위험 최고조

7일 하루동안 철원(2건), 동해, 삼척, 횡성, 양양 등 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은 영서남·북부와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 인명·시설 피해 잇따라

이날 강원도에서는 6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23분쯤 횡성군 횡성읍 송

철원 2건·동해·삼척·횡성·양양
영서·영동 일부 '경계' 경보 상향
선거 접전 짝수해 '징크스' 긴장

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2대, 화재진화차량 등 장비 11대, 인력 44명을 투입, 산림당국 등은 약 3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불 시작 지점 약 20m 떨어진 곳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화재 발생 장소가 국가중요시설

인형성택을 관리하는 횡성원주권지사 정수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같은날 양양강현군 정암리, 동해시 산동동, 삼척시 원덕읍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 철원에서는 이날 하루 두 차례의 산불이 났다.

■ '화약고'가 된 강원도

산림청은 강원·경기·인천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원도는 홍천·춘천·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

성·양양이 대상이다.

특히 '선거있는 짝수해 대형산불' 징크스까지 있는 만큼 4월을 맞는 도내 시·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바로 1년 전 일만 돌이켜봐도 끔찍한 4월이었다. 지난해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습도가 20%내외, 실효습도가 40%내외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양양 40%·강릉 41%·고성(대진) 41%·삼척 42% 등 영동을 중심으로 마른 날씨를 보였다.

특히 4월은 기온이 높고 바람이 강해 비가 오더라도 낙엽 수분함량이 금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 수분함량 18% 이하일 경우 일 평균 2~7건 산불이 발생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재훈·박재혁·지역종합

2024 04 08 ()

06

江原日報

도교육청 '6대 의대 진학 프로그램' 추진

여름방학 성적향상 캠프 등 진행
대학 동반 입시전략·진학설명회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이 의과대학 학생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6가지 '의대 맞춤형 진학프로그램'(본보 3월8일자 1면 보도)을 추진한다.

먼저 춘천 사대부고 등 18개 시·군별 거점형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의대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주말에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수능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전략과목 주말 동행 특강'도 마련한다.

여름방학에는 강원학생교육원·강원국제교육원에서 단기간 성적 향상을 위한 '수능등급 레벨업캠프'가 열린다. 레벨업캠프가 끝난 후에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쌍방향 온라인 수능특강이 이어진다.

강원지역 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도교육청은 4개의 대뿐 아니라 강릉원주대, 상지대가 참여하는 '의대·치대·한의대 입시전략 및 진학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또 의대 맞춤형 모의면접도 병행한다.

특히 춘천고, 원주고 등 자율형공립고는 교과 편성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의대 진학에 유리한 교과과정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 진학프로그램이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다양한 연수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도 활발하다"며 "의대 진학프로그램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07

골목상권 파고드는 수입 과일...강원과수 판매 열세

농식품부 직수입 과일 공급 확대
국내 산지 농산물 판매부진 우려
유통구조 문제 지적 정책 비판도

정부가 직수입 과일 할인지원 확대·공급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물가 안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농산물의 판매 부진도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일값 안정

을 위해 직수입한 과일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에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형 슈퍼마켓연합회, 나들이가계연합회와 연계해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250개 점포에 초도물량 8.2t을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오렌지를 시작으로 바나나, 체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접근

이 쉬운 골목상권에서도 수입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물가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소비자들이 불안정이 기대되는 반면 강원지역 산지 농산물의 판매 부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체가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과와 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정

선·양구·홍천 등 주요 사과 생산지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수입 과일 확대 공급으로 인한 판매 열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강원지역(춘천 중앙)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3만 4300원으로 1년전 보다 52.44% 뛰는 등 여전히 비싼 수준을 유지 중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과, 배 등 국내 과일이 비싸져 손님들이 오렌지, 망고 등 수입과일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산지 재배·유통 업체를 위한 경쟁

력 제고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 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 연합 회원 등이 정부의 농산물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렴과일값의 폭등은 기후 재난에 따른 생산량 절대 감소와 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에 기인한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민들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16

고성 해양심층수 제2특화농공단지 '순항'

324억원 투입 행정절차 완료
12만여㎡ 토지보상 80% 진행
1농공단지 연계 시너지 기대

고성 해양심층수 제2특화농공단지 구축사업이 토지보상 80%를 마치는 등 순항하고 있다.

7일 고성군에 따르면 제2특화농공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제2특화농공단지는 고성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다. 산업시설 8만 2731㎡, 지원시설 3025㎡, 공공시설 4만 3822.2㎡ 등 총면적 12만 9578㎡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324억원이다.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80%를 추진한 상황으로 군은 개인소유 57필지(11만 5711㎡)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울

해 상반기까지 77억원 상당의 협의의 보상을 마친 후, 미협의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은 해수부의 지역 특화 사업인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라 제 2단지가 조성되면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 제1농공단지와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은 해양심층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반으로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증대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웰니스 해양치유센터도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함명준 군수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고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견실한 기업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지산 jisan@kado.net

江原日報

2024 04 08 ()

01

응급수술마저 어려워진 도내 대학병원

전공의 사태 장기화 속 의료공백 해결 난망

강릉 아산병원 응급분만·대동맥 수술 등 진행 차질

도내 대학병원 병상가동률 최저 39%까지 떨어져

강원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수술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지 4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전공의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7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는 ‘전공의 부족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어렵다’는 강릉 아산병원의 알림이 올라와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산과와 부인과 응급수술, 흉부·복부 대동맥 응급수술 등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하는 수술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병원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들이 예약한 진료와 검사가 미뤄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강원대병원 교수진은 한때 병원 외래 진료구역에 안내문을 붙

이고 “주당 100시간 근무의 연속으로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외래 진료 중에 발생하는 입원 환자의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공지하고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래 진료를 축소한다”고 알렸다.

진료 축소와 환자 감소가 계속되면서 도내 대학병원 병상가동률은 7일 오후 3시 기준 최저 39%까지 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외래 축소로 인해 지역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군 단위로 비상진료망을 가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14

영월 역사문화축제 단종문화제 26일 개막

28일까지 장릉·동강둔치 개최
야간 단종국장 재현행사 마련
침줄 줄다리기 군민화합 기원

영월군의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올해 제57회 단종문화제가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 테마로 오는 26일 개막돼 28일까지 사흘간 세계유산 장릉과 동강둔치·문화예술회관 등 영월읍 일원에서 마련된다.

비운의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단종제 첫 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장릉에서 일반·학생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시작으로 단종의비(妃)정순왕후 선발대회와 개막퍼포먼스에이



영월군과 단종제례보존회는 지난 5일 세계유산 장릉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고병순 창절서원장과 함께 단종제례 공개행사를 마련했다.

어 장민호·김성식·이효은·허민영·노수영 등의 콘서트와 드론라이트쇼·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오전 8시부터 관풍헌~장릉 구간에서 취타와 단

종·정순왕후·도깨비행렬과 풍물단 등으로 구성된 단종퍼레이드에이은 단종제향 등과 함께 단종 승하 550년 만인 2007년부터 영조국장도감의궤를 참조해 옛 국장방식 그대로의 야

간 단종국장(國葬)재현행사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또 동강둔치 잔디밭에서는 영월과 단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울려라! 깨비 역사 퀴즈쇼!'와 가족단위 참여 미션게임인 '달려라! 깨비마블'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 침줄 행렬과 서편·동편 침줄다리기를 통해 방문객들과 함께 군민 화합과 안녕 그리고 풍년농사를 기원한다.

최명서 군수는 "올해 단종제는 군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축제 키워드인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를 구체화한 것과 덩기·곤룡포 만들기 체험을 새롭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방기준 kjbang@kado.net

江原日報

2024 04 08 ()

06

국토부·지자체 GTX-B 연장 첫 공동실무협의

춘천시·가평군에 용역결과 밝혀
현 사업비서 절반가량 감소 전망
시 국비지원 반드시 필요 뜻전해

속보=춘천시와 가평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을 위한 첫 공동 실무협의(본보 3월8일자 16면 보도)를 가졌다.

춘천시와 가평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GTX-B 춘천 연장 건설 비용과 분담 방안,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GTX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의 일부 결과를 알리며 춘천 연장 노선의 사업비 감소 전망을 밝혔다.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 4,

238억원의 경우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 추진한 'GTX-B 춘천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출된 금액으로 국토부가 실시한 연구와는 운행 횟수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춘천시와 가평군 용역에서는 1일 92회 운행으로 기준이 세워졌지만 국토부는 GTX-B와 같은 선로를 쓰는 경춘선과 ITX, 동서고속화철도 운행 등을 고려할 때 GTX-B 운행 횟수가 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GTX-B 운행이 축소 조정되면 인천~마석 구간 열차를 춘천 연장 구간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열차 구입 비용이 자연 감소한다. 춘천시·가평군 용역에서는 추정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2,040억원을 열차 구입비로 추산했다.

춘천시는 사업비 감소에 따른 '득'과 운행 횟수 축소로 인한 '실'을 현 단계에서 따져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토부 전망대로 사업비가 감소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이번 국토부 협의에서도 이 같은 뜻이 전달됐다.

춘천시는 이달 GTX-B 국비 반영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신청하기 위해 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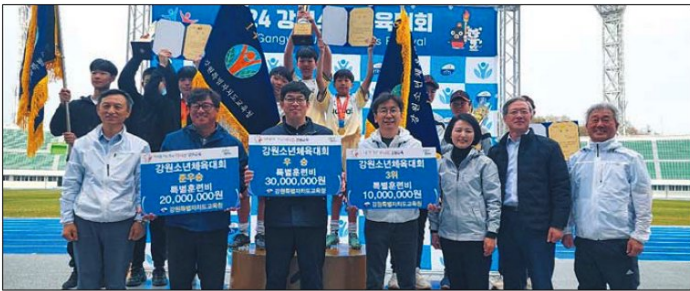
춘천시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 운행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복합 분석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계획 반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

江原日報

2024 04 08 ()

23



◇춘천교육지원청이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 1부 우승을 차지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이 2, 3위에 올랐다.



◇양구교육지원청이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 2부 우승을 차지했다. 횡성교육지원청과 영월교육지원청이 2, 3위에 올랐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춘천·양구 우승 ... 대회新 35개 터졌다

〈1부〉

〈2부〉

2024 강원소년체전 성료

강원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4 강원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6일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주 개최지인 강릉시를 중심으로, 춘천, 원주, 양구, 양양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열렸다. 1·2부로 분리 운영해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1부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이 금메달 155개, 은메달 108개, 동메달 73개, 종합점수 2,044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원주교육지원청(1,959점), 강릉교육지원청(1,333점)이 뒤를 이었다.

초·중생 3,159명 참가 1부 원주·강릉 2부 횡성·영월 뒤이어 다관왕 185명 배출 ... 우수 선수 내달 전국체전 도대표 참가

2부에서는 금메달 6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32개, 종합점수 864점을 획득한 양구교육지원청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횡성교육지원청(688점)이 2위, 영월교육지원청(660점)이 3위에 올랐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초·중등생 3,159명의 선수가 30개 종목(초등부 22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23개), 역도(9개), 자전거(2개), 육상(1개) 등에서 총 35개의 대회신기록이 쏟아졌다. 역도

에서는 3개의 대회 타이 기록도 나왔다.

특히, 역도 남자중학부 1부 102kg 이상급에 출전한 김인혁(원주 치악중 3년)은 3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다음 달 목포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 선수도 185명이 배출됐다. 양구 남자초등부 2부 윤창현(횡성 둔내초 6년)과 체조 남초부 1부 안시홍(춘천 중앙초 3년), 최솔민(원주초

1년)이 6관왕을 달성했다. 5관왕은 9명, 4관왕은 20명, 3관왕은 59명, 2관왕은 94명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자치도 대표로 참가한다.

김기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다수의 신기록을 작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 5월 목포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17

이상헌 2경기 연속 멀티골... 강원FC 5위 도약

전북전 3-2승 시즌 첫 연승 달려
강투지 환상 중거리 분위기 반전
윤 감독 울산전 '화끈한 공격' 예고



강원FC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승과 함께 리그 5위로 도약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FC는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경기 전까지 리그 8위였던 강원은 승점 9로 FC서울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3골(11-8) 앞서 5위까지 도약했다.

단 페르레스쿠 감독과 결별한 전북은 이날 박원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섰다. 경기 초반 양 팀은 탐색전을 이어갔다. 강원은 후반 빌드업으로 점유율을 높였고, 전북은 쉽게 나서지 않고 수비를 촘촘하게 이뤘다. 강원의 공격 축구가 활로를 찾지 못하던 중 전반 40분 황문기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박



강원FC 이상헌이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 선제골을 기록했다.

사진제공=강원FC

스안에서 야고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흐른 볼을 황문기가 쇄도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골키퍼와 충돌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상헌이 킥커로 나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전북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전반

추가시간 김태환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윤석영의 팔에 맞았다. 판정이다. 맞은 부위가 들어올린 오른쪽 팔인지, 몸에 붙인 왼쪽 팔인지도 호한 상황이라 주심의 온필드리뷰가 길어졌지만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됐

고, 김태환이 킥커로 나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어진 후반전, 전북의 공세가 강해졌지만 강투지가 원더골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역전시켰다. 후반 24분 하프라인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던 중 공을 잡은 강투지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

라와 박스 오른쪽 바깥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골망 왼쪽을 갈랐다.

흐름을 잡은 강원은 4분 뒤 쇄기골까지 박았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조진혁이 압박에 성공한 뒤 야고에서 전진패스를 했다. 야고는 문전 오른쪽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지만 왼쪽에 있던 이상헌에게 건넸다. 이상헌의 첫 번째 슈팅이 키퍼에 막혔지만 세컨볼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상헌은 6경기 7골로 득점 선두를 유지했다. 2위 이동경(울산 HD)과는 2골 차다. 7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질 가운데,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 문선민의 원발 발리골로 추격했지만 시간이 아속했고 결국 강원 의 3-2승으로 경기가 끝났다.

경기를 마친 뒤 강원의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홈 경기 첫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승전보를 전해 받았다. 윤정환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음 경기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울산 HD와 원정이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 박진감 넘치고 화끈한 공격 축구로 멋진 경기를 보여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예섭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 19

반짝 할인행사 물가 안정 한계

-유통단계 벗어나 생산·소비자 위주 및 로컬푸드 강화를

매일매일 먹어야하는 식료품 및 외식비 상승폭이 커지면서 먹거리 비용 부담에 대한 압박감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가 3%대로 다시 상승했으며, 외식물가 상승률은 4%대를 나타내며 가격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물가를 내리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 등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하는 장바구니 및 외식 물가에서는 인하의 폭을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강원통계청이 이달에 발표한 '3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작년 같은 달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2% 올랐습니다. 특히 식품 생활물가지수는 5.5%인상됐으며, 신선식품물가지수는 무려 19.7%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 품목 중에서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부문이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형국입니다. 동시에 전기료는 4.3%, 도시가스 5.1% 인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몇 년간 물가 추이를 보면 2020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월의 강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1을 기록한 것이어서 고물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식비 상승폭이 일반 물가보다 높은 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나쁜 신호로 읽힙니

다. 소비자물가에서 관리하는 외식 품목은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인에게 와닿는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이용해오던 직장인들은 급등하는 가격 부담 걱정이 커졌습니다. 구내식당 식사비의 경우 무려 10%에 육박하는 9.39% 상승한 탓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신 생필품가격 보고에 의하면 품목별 최저가와 최고 가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당근과 생물오징어의 경우는 4배의 격차를 보이고, 가공품의 경우도 두세배 차이를 보이는 품목이 적지 않습니다. 공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은 체감하는 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형유통업체 마트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중이긴 하나, 기간이 제한된 반짝 할인이어서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농수축산물 물가안정 정책이 유통업체 위주로 지원됨으로써 오히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농수축산업 직접 생산자 및 소비자 지원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로컬푸드 활성화 및 강화를 통한 물가안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8 ()

/ 19

‘바이오 의약’ 주도권 확보해야

-정부 2030년까지 17조원 지원, 전략적 대응 필요

강원지역 기업의 의약품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바이오 의약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산업으로, 도민들의 기대도 지대합니다. 신뢰를 보장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점유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바이오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17조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15조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첨단 바이오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바이오의약 산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 휴젤, 파마리서치, 애드바이오텍 등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비중

이 높아,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약품, 화장품 부문은 도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지난 2월 강원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35.5% 증가한 3억 430만 달러입니다. 그중 수출 5위 품목인 의약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153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브라질·태국 등으로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해당 품목 전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1198만 달러로 전체 품목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지구촌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규모가 커질 미래 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과 남미 국가들도 기술 개발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한국 제품의 고급 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확대와 주력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구와 기술 개발이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효자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계의 사업 방향과 애로 사안을 수렴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08 ()

/ 19

총선 사전투표 열기 최고, 본투표에도 이어지길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 6일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이 참여해 31.28%로 집계됐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높으며 역대 총선 중 최고 수치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의 36.93%보다는 5.65% 낮았다. 강원지역 사전투표율은 32.64%를 기록했다. 전

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2020년 21대 총선 28.75%,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25.20%, 20대 대선 38.

42%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이 최고인 곳은 전남(41.19%)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순이다. 서울(32.63%)의 사전투표율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구(25.60%),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은 30%를 넘기지 못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봐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한 점, 양당 지지층이 집결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높은 사전투표율이 꼭 야당에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1대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제일 많이 증가한 곳 중에는 민주당 텃밭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수도권과 충청은 한국갤럽의 올 3월 4주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pm 3.1\%$ 포인트, 응답률 15.4%,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곳이다. 다만 보수 성향이 강해 온 대구와 부산 등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어디에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접전 선거구가 많은 만

큼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오는 10일 본투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남은 기간 막말을 자제하고, 통합과 민생 해결의 정책 경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중 최고치
강원지역 32.64% 전국 다섯 번째로 높아
유불리 예측 어려워 지지층 결집 더 중요

유권자는 '나쁜 정치'를 심판하고 자질 부족 후보들을 숙여내야 한다. 21대 국회는 여야의 끝없는 권력 싸움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22대 국회에서 무한 정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의원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혹시라도 정치에 실망해 투표를 망설이는 유권자가 있다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는 더 악화될 뿐이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4 04 08 ()

/ 19

손님 없는 전통시장,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전통시장에 손님이 없다. 전통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전통시장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3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내린 40.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40.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1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BSI는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2,400명, 전통시장 상인 1,300명을 대상으로 매출, 자금 사정, 구매고객 수 등을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그보다 높으면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고, 낮으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표적인 서민 경제활동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 특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다. 고도화된 유통 시스템 속에서 경제 논리에만 좌우된다면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해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 생활문화 공간의 상실과 서민경제 영역의 축소를 뜻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해법은 결국 전통시장 자체에 있다. 전통시장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부응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보해야만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가 유지되고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 경영 노하우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의 뒷받침이 없이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전통시장의 태생적 한계다.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를 북돋우는 정책적 지원이 결합돼야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문화를 창출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식으로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 산발적인 지원, 하향식 지원의 한계를 극복해 집약적·체계적이며, 자치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다. 편의시설 확충, 낡은 시설 개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역량 계발 등 소프트웨어 강화도 미룰 수 없다.